

사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오늘 우리 조국은 무진막강한 선군의 위력을 과시하며 광활한 미래를 향해 질풍같이 돌진하고있다. 전방,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이하고있다.

선군철은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의 줄기찬 계승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승리를 담보한 력사의 날이다. 이날이 있어 수많은 유망무명의 혁명선열들이 고귀한 피땀을 바쳐 정취한 혁명의 모든 진위물들이 굳건히 수호되고 우리 조국의 권위와 존엄, 국력이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수십년래의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고 위대한 승리의 년대들을 굳건히 추켜들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가는 오늘의 벅찬 시대로 맞이할수 있었다.

뜻깊은 선군철의 아침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이시고 대대손손 락을 누릴 강성민국의 시대를 펼쳐주시는 주체의 선군태양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정사에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명도로 력사의 준엄한 시험과 통과를 해치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셨습니다.»

주제 49 (1960)년 8월 25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랑감을 안으시고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 105명포사단에 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제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죄철갑사단을 찾으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명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그 길은 험연할수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 혈전의 길이었으며 그 누가 몰라준데도 오직 희망안고 가야 하는 신념의 길이었으며 걸음걸음 사신을 헤쳐야 하고 불철주야로 혁명을 이룩해야 하는 희생적인 헌신의 길이었다. 다른 정치가들같은 엄두조차 낼수 없는 간고한 선군정쟁을 사회주의조국과 인민, 후대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쉬임없이 걸으신 여기에 김정일동지의 절세의 위인이 있다. 강철의 선군명장의 초강도강행군같이 우리 조국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강대한 힘을 키우게 되었고 주제혁명명 무력의 온갖 통과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위업으로 단방에 존엄떨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이룩하신 업적은 하나하나 다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다.

지난세기 90년대후 우리 조국이 미국을 피수로 하는 세계의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당당히 맞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편편승을 이룩하고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제제봉쇄속에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 인공위성 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솟아오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중의 기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 선군혁명론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이 자주의 성세, 사회주의강성부대로 위용떨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진족적투쟁에서 역사적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전대미문의 과격후과를 초래한 새로운 세계대전이 방지되었다. 우리의 승리는 미제의 강권과 일방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질서에 패를 구를 열어놓고 위축되었던 세계사주위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 세계사주대변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진미망의 선군명도과정에서 선군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어 혁명선전에 빛나게 구현하시으로써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 자주위업수행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승의 기치를 마련하시었다.

동서고급에 인민대중의 운명계획과 세계정치사에 력을 남긴 이룩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많았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처럼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애에 거대한 공헌을 한 절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는 없었다. 펼쳐진 바다가 되고 쌓인 하늘이 땅을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들로부터 다함없이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었으며 적대국의 정치가들도 머리를 숙이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셨다. 고난의 원리를 헤쳐 선군조선의 대변명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선견지명을 지니신 혁명의 대성인이시었으며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유산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더더욱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명도사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선군혁명명도, 선군정치야말로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를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하여 위대한 미래를 앞당기는 민중의 보검이며 모든 승리의 담보라는데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김정은동지께서 피눈물속에 맞이한



새해 첫날 아침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명포사단을 찾으신데 이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과 새로운 병진노선을 제시하신것은 그 어떤 천지동파가 닥쳐온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선군의 기치를 높이 이 땅위에 강성 부흥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거머쥐어 건설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행동에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이 천배로 강화되고 선군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불패의 위력을 떨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천만군민의 혁명신념과 의지를 역세게 버려주고 있다. 선군혁명의 핵심, 주력군인 백두산혁명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면모, 당정책을위정신과 창조기풍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길에 부러놓으신 강성부흥의 씨앗들이 풍만한 결실을 맺고있다. 주제혁명의 새시대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기적인 변혁들이 다제단으로 이룩되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총정파 의리의 결정체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국력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진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무도하고 비렬한 제제압박들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현 국제정세와 우리 혁명선군은 치렬한 사회주의수호전시기만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이 전면으로 나선 시기일수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가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

선군은 우리 혁명대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정에 화기화기한 위업의 보검이시다.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완성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 발전음을 끝까지 같이하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것이다. 혁명의 주체의 끊임없는 장성강화이자 곧 최후승리를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당과 수병의 군대로, 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하고 인민군대가 지니고있는 높은 사상정신력, 혁명적기질을 전제 인민이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혁명대오전반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최정예전투부대로 만들었다. 오늘 우리 조국이 위대한 김정일선군, 김정일조선의 장계를 훌륭히 띠며고갈 수백만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도 당의 선군정치가 펼친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력사와 경험은 선군이야말로 계속혁명정신이 투철한 정치적명장, 병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선군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한 필승의 보검이다.

미제는 우리 민족을 들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자주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공갈과 광란적인 침략행동을 매일, 매시간 감행하여왔다. 력사상 처음으로 반미대결전 결전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침해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성전이다.

미제가 촉발시킨 조미대결결사는 오직 힘으로써만 총결지을수 있다. 우리가 당의 선군명도따라 허리를 조이며 다져온 무적필승의 군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공화, 반사회주의행동을 걸음마다 제압분쇄하고 수십년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총파산시키고있다. 만약 약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구들을 몰아온다면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으로 치박을것이다.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은 있어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화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속망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선군은 우리 민족의 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창조적의 원동력이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문명과도 유혹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이었다. 우리 당 선군정치의 위대성은 무적의 총대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질실시 하는 창조적행정을 굳건히

담보해줄뿐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기수, 돌격대로 내세워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최대의 속도로 밀고나가는데서 남김없이 파시되고있다.

오늘 당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의 당군인 우리 인민군대는 강성국가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모험이 마다에서 통과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대중적영웅주의와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게 하는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도처에서 일으키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선구자적모범은 온 나라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꽃을 새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선군이야말로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하루빨리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워 태양민족의 존엄을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철석의 의지와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구현한 위대한 혁명방식이다.

오늘 경에하는 원수님의 병도따라 백두의 선군전용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선군철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려 드리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숭고한 경의는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걸어오신 선군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다하려는 엄숙한 맹세이다.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선군명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며 백두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전제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가 되어야 한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장군님의 선군명도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실천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오늘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은 장군님의 선군혁명명적들을 깊이 빛내어가는 고결한 총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는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무적의 총대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질실시 하는 창조적행정을 굳건히

걷는 길이 선군의 길이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그 어떤 시련이 가로놓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켜주신 선군의 길에서 O.O1mm의 에누리나 탐험도 모르는데 선군사상 선봉자들의 투철한 립장과 자세가 있다. 우리는 선군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당의 병진노선을 전철히 옹호관철해나가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사상과 의지, 병도종모를 완벽하게 체현하고 선군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강철의 선군명장, 실력가형의 탁월한 병도자이시다. 우리는 온 세계가 공인하는 절대적권위를 지니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병도따라 강성부흥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끝없는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뼈속깊이 새겨안고 원수님의 사상과 병도를 일심전력을 다해 받들어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령절사옹위정신이 오늘의 총진군경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어야 한다. 자기 병도자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병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병도자의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될수 있다.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들을 무조건 끝까지 완벽하게 집행하는 혁명적인 규율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 선군의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 진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오늘의 현실은 자위적극방벽을 철벽으로 다져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혁후대이며 역력의 지지점인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명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을 7면대칭호칭위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노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자기 수령을 닮은 혁명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 전제 장병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과 투쟁정신, 고매한 품모를 적극 따라배워 군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지금 이 시각 영웅한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견전태세를 갖추고 최후승리를 위한 돌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성스러운 조국통일대군으로 대담하러는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버리며 로능적위군, 붉은청년군대는 원수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들어오던 적에 소멸할수 있게 단단의 전투통원태세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전제 인민이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새차게 일으켜야 한다.

오늘 세계를 굽어보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웅대한 설계도와 혁명시간을 심장깊이 새긴 우리 인민군인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맨 앞장에서 폭풍중 내달리고있다.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이 인민군대의 발걸음 속도를 따라 돌고있다.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나갈 때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미래는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전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정책관철을 자기들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로 여기고 결사전을 벌려 집행해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일꾼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격렬한 전방에 지휘부문을 전개하고 현장지도, 현장정치사업을 화신으로 박혀있고 버려나가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위대한 투쟁방식이다. 사회주의대전설적전투들과 인민생활과 직결된 대조선건설에서 군민협동작전의 무한한 힘을 총발동하여야 한다.

당의 병도따라 선군조선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선군혁명의 전위조직이며 당의 사상과 병도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각종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선군명도업적을 전철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풍세적으로 실효성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선군의 덕을 입으며 자라난 새 세대들이 백두의 선군명장들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뼈에 새기고 선군의 향로따라 뜻깊이 걸어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의 유일적명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속도를 더한층 높여나가야 할 오늘 당중앙은 모든 당조직들과 일꾼들이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고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화판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당조직들은 집단을 화목하고 단결된 대가적으로 묶어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백승을 아로세우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명사와 업적이 우리를 고무추동하고 회세의 선군명장의 새변천 병도가 우리들 새로운 승리로 이끌게 하는 주체의 선군혁명명도의 전도는 끝없이 장엄하다.

모두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병도따라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위대한 김정일, 김정일조선의 아름다움 미래를 앞당겨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력사는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흐를 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심과 높은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신장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력사의 첫 자욱을 새기신 원대한 승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력도를 시작하신 8월 25일은 건군절과 함께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선군위업실현에서 사변적의미를 가지는 혁명적명절입니다.

무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위상도 역사의 이념과 잇닿아 있습니다.

뜻깊은 선군절이 있어 우리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이 수십년세월 전쟁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누려 오수 있었습니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8월 25일을 전통적인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이 땅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려는 드림있는 신념과 의지의 파시로 됩니다.

민족의 만년재보로 빛을 뿌리고 주체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체의 선군위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선군혁명력사를 굳건히 계승하여 년대와 세기를 넘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로 꽃피어 이어놓으신 바로 여기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치열한 반제반미대결전을 변천변승으로 이끄시어 우리식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신 철저한 반제자주, 애국헌신의 역사입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의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이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두산대국의 천년미배를 담보해주는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든든히 다져주신것입니다.

선군으로 마련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의화를 굳건히 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시어 인민군대를 한 생애를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이제는 반공화국고립살해책동이 극도에 이른 1990년대 중엽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단행하신 다박초소에 대한 현저적 전환은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메고 영웅적으로 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 자욱은 조국의 높은 산과 험한 명,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나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해오신 드림있는 혁명신조였으며 가장한 혁명실현이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오신 승결한 계승과 총정의 역사입니다.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천고의 밀림에서 탄생하시어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승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실험과 모험을 다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혁명력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드림없는 계승과 선군명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이념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장장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개척기부터 견지하여오신 총대중심, 군사중심의 원칙을 100%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며 세련된 명도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이로 이끄시었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어 주체의 선군위업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탁월한 선군명도에 의하여 미일 두 제국주의강력을 타승하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조국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과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가 천명되었으며 선군정치론이 정립체계화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이 하나의 완성된 혁명학설로 확립됨으로써 인류사상사에서 새로운 경지가 열려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선군사상으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21세기혁명실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대배과판서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권력,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반제자주리념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두산대국의 천년미배를 담보해주는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든든히 다져주신것입니다.

선군으로 마련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의화를 굳건히 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시어 인민군대를 한 생애를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이제는 반공화국고립살해책동이 극도에 이른 1990년대 중엽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단행하신 다박초소에 대한 현저적 전환은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메고 영웅적으로 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 자욱은 조국의 높은 산과 험한 명,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나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해오신 드림있는 혁명신조였으며 가장한 혁명실현이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오신 승결한 계승과 총정의 역사입니다.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천고의 밀림에서 탄생하시어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승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실험과 모험을 다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혁명력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드림없는 계승과 선군명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이념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장장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개척기부터 견지하여오신 총대중심, 군사중심의 원칙을 100%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며 세련된 명도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이로 이끄시었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어 주체의 선군위업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일색화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백승을 떨치는 선군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인민류사상사에서 새로운 경지가 열려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선군사상으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21세기혁명실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대배과판서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권력,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반제자주리념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두산대국의 천년미배를 담보해주는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든든히 다져주신것입니다.

선군으로 마련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의화를 굳건히 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시어 인민군대를 한 생애를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이제는 반공화국고립살해책동이 극도에 이른 1990년대 중엽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단행하신 다박초소에 대한 현저적 전환은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메고 영웅적으로 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 자욱은 조국의 높은 산과 험한 명,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나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해오신 드림있는 혁명신조였으며 가장한 혁명실현이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오신 승결한 계승과 총정의 역사입니다.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천고의 밀림에서 탄생하시어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승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실험과 모험을 다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혁명력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드림없는 계승과 선군명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이념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장장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개척기부터 견지하여오신 총대중심, 군사중심의 원칙을 100%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며 세련된 명도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이로 이끄시었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어 주체의 선군위업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시었습니다.

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도와 업적은 오늘 백두산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혁명력도의 길에 함께 계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대로 받들어 군대와 인민의 사상, 정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도록 하시어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두산대국의 천년미배를 담보해주는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든든히 다져주신것입니다.

선군으로 마련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의화를 굳건히 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시어 인민군대를 한 생애를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이제는 반공화국고립살해책동이 극도에 이른 1990년대 중엽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단행하신 다박초소에 대한 현저적 전환은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메고 영웅적으로 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 자욱은 조국의 높은 산과 험한 명,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나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해오신 드림있는 혁명신조였으며 가장한 혁명실현이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오신 승결한 계승과 총정의 역사입니다.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천고의 밀림에서 탄생하시어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승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실험과 모험을 다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혁명력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드림없는 계승과 선군명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이념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장장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개척기부터 견지하여오신 총대중심, 군사중심의 원칙을 100% 계승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며 세련된 명도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이로 이끄시었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어 주체의 선군위업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하시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 대국의 영상이시며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주체의 선군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선군혁명실록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제이가는 국보로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국망위협에 위헌장조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방식을 굳건히 계승하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어 장군님의 선군혁명력도사가 빈함없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경에서 발표하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작품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는 불멸의 기치로 되었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단장하시고 우리 식의 다종다양한 타격수단들로 장비된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노고를 바치시고 있습니다.

인민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최첨단과학기술과 모연서린 화신들을 혁명의 자욱을 새기시며 전군에 군위부대운동과 명사수, 명보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도처에 일며서고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이 수많은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민의 이름다운 꿈과 리상이 하나하나 꽃피어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을 해왔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헌신과 맞바꾸어 마련해주시는 강성변영의 토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가슴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명도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셨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시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옹성같이 다져주시어 선군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었습니다.

전장을 주체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백승을 떨치는 선군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인민류사상사에서 새로운 경지가 열려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선군사상으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21세기혁명실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대배과판서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권력,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반제자주리념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두산대국의 천년미배를 담보해주는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든든히 다져주신것입니다.

선군으로 마련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의화를 굳건히 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시어 인민군대를 한 생애를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였습니다.

은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인민적, 전국각지방위계체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주체의 선군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선군혁명실록을 우리 조국과 민족의 제이가는 국보로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국망위협에 위헌장조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방식을 굳건히 계승하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어 장군님의 선군혁명력도사가 빈함없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경에서 발표하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작품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갈수 있는 불멸의 기치로 되었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단장하시고 우리 식의 다종다양한 타격수단들로 장비된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노고를 바치시고 있습니다.

인민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최첨단과학기술과 모연서린 화신들을 혁명의 자욱을 새기시며 전군에 군위부대운동과 명사수, 명보수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도처에 일며서고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이 수많은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민의 이름다운 꿈과 리상이 하나하나 꽃피어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을 해왔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헌신과 맞바꾸어 마련해주시는 강성변영의 토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가슴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명도로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셨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시어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철옹성같이 다져주시어 선군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었습니다.

전장을 주체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백승을 떨치는 선군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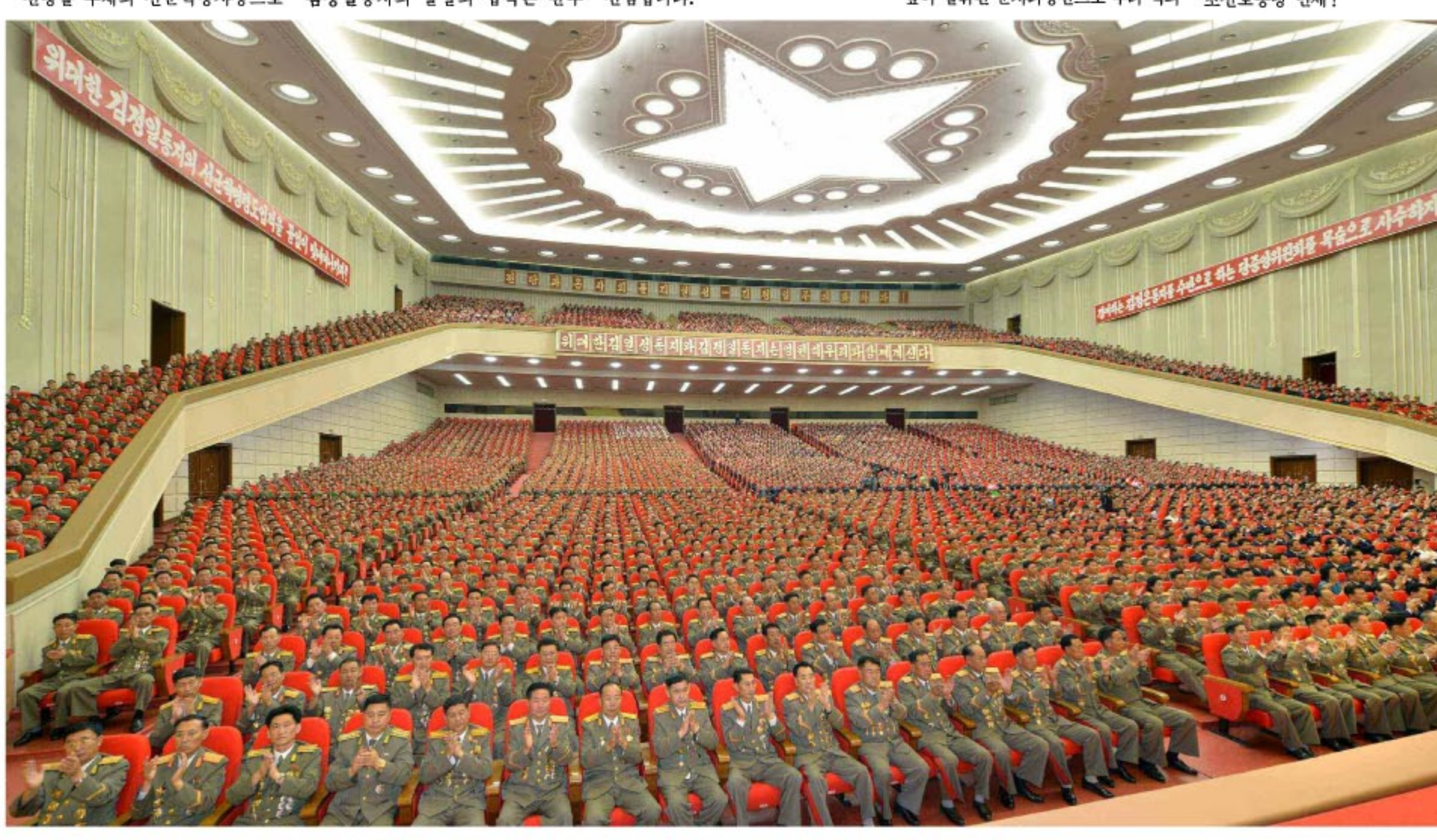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인민류사상사에서 새로운 경지가 열려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선군사상으로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21세기혁명실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대배과판서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권력,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반제자주리념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두산대국의 천년미배를 담보해주는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를 든든히 다져주신것입니다.

선군으로 마련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백두산대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무전막강한 힘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주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에 즈음하여

경축우표들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을 맞아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경축우표들(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을 발행하였다.

우표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주제49(1960)~주제104(2015)》, 《선군절 8.25》라는 글자들이 새겨져있다.

소형전지의 중심에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실적을 수놓으시며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시고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선군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담성이 정중히 묘사되었으니 찬탄할 대원수들이 선군의 산악 오성산을 배경으로 부각되어있다.

묶음전지에는 밀고 힘찬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군근인들에게 친아버지의 다정한

사랑을 부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조선투화 《우리 병사들의 노래가 제일이라 하시며》, 유화 《선군령도의 길》을 형상한 우표들이 편입되어있다.

우표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업적을 찬탄하며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하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시) 선군절 이 아침에

눈부신 거리에
복합은 강산에
쏟아져내리는 억만가닥 해살도
선군절 이 아침
류달라도 베풀 환희를 안겨주누나

남마다 커만 가는
이 땅의 행복을 안아볼수록
내 조국의 존엄을 생각할수록
고마움에 사무쳐 불러보노라
아, 선군!
우리의 선군!

젖어드는 이 가슴에 어려오누나
나의 삶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의 별천지를 펼쳐주시려
모진 고생도 락으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의 불같은 한평생
위대한 선군의 그 한평생이

눈뿌리 아득한 저 사파바다
강성부흥에이리로 울리는 CNC동음
에도
그림같이 아름다운 선경마을 추녀
아에도
어머님의 정과 열이
후대에 스며있는 이 땅

우리 장군님
야전복자락에 품안아 꽃피우신 막연
사생결단으로 헤쳐가신
전진길의 그 천만자욱이
소중히 떠받치는 이 강산

원수들의 정수리에

정의 핵우뢰를 터쳐
민족의 만년보국을 안겨주시분
이 조선을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들어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우리 장군님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목숨이 된 선군
행복의 만년터전을 다져
강국의 존엄을 떨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

행복이여라
선군으로 강대한 이 땅에서
내가 산다는것이
자랑이여라
선군의 붉은기에 미래를 열고
광휘로운 앞날을 마주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장군님
만고의 애국헌신으로 이어가신
그 전진길 천만리에서
비쳐오는 파스한 해살이
창가마다 웃고있구나
락인의 이 강산을 무지개빛으로
휘감았구나

선군, 선군으로
한평생 불태우신 심장의 그 불꽃이
소용돌이치는 내 조국의 하늘이여
야전복 입으신 위대한 어머니의
그 영상
태양으로 눈부신
아, 이 땅의 아침이여

(시) 14명 육탄자폭용사위훈비!

저 푸른 하늘에 뻗어간
결사의 육탄항로가
여기서 시작되는가
승업히 솟아있는
14명 육탄자폭용사위훈비!

나뭇기는 최고사령관기
그 기둥에 힘입은 은빛에는
금시라도 번개처럼 날을듯
우뚝서는 출격의 그 동음
적전에는 돌입하던 육탄정신은
신념의 불꽃되어 이 마음에 퍼덕인다

우주만리로 솟구쳐오르는
우리의 위성 《광명성》을 수호한
용사들의 그 이름
비에 새겨져
별무리인양 빛을 뿌린다

결사의 기수를 쳐든 육탄비행대
돌아를 연유대신
폭탄을 달린 비행사들의 그 웨칭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

김정 삼
꼭 살아서 돌아오라!
전투명령서로 울리던
원수들의 불같은 사랑의 그 영상이
말없는 위문에서 메아리치고있어라

어찌 돌로 세운 비라고 하라
한평생의 전사들을
선군혁명정도로 생사를 같이하는
우리 원수들의 전우애의 세계가
선군의 하늘가에 반들어올린
승리의 위훈비!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신으로
이 나라 병사들을
불사신의 영웅으로
선군의 산아로
역세계 키워주는 신념의 불기둥!

이 위훈비앞에 삼가 경의를 드리며
14명 육탄용사들의 이름만을 읽지
않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기어이 최후승리를 안아올

(시) 병사의 군화소리

기 경 호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짐을
주저없이리라
심장의 붉은 피를 펴낼 풀이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실사 지회발이 가로놓인대도
내 웃으며 헤쳐가리니

전희의 날 아버지세대가
원수 미제를 무찔러
남진의 길 주름잡아 내댤던 소리
우리 아버지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어느 한순간도 벗지 못한 이 군화

세월은 흘렸어도
아직도 내 나라 철핀땀이
미제의 군화발에 놓여있어
조국은 우리에게
쉬엿구름을 내리지 않았거니

폭풍이 막아서도
불비가 쏟아져도
멈출수 없는 군화소리여
너는 병사를 병사로 살게 하는
심장의 박동!

나는 아노라
이 아침도 아이들 즐겁게 오르는
그 정다운 학교길과 야영길들이
영웅의 혼연기에 반들어있음을
병사의 군화소리 높이 울릴수록

(시) 군기는 나를 부른다

김 연
나는 그 이름도 자랑높은
105명사단 군위병사
지속을 울리며 폭풍처럼
승리의 물결로 앞에 두고
백승만을 떨쳐온
우리 부대 군기를 우러른다

한번 휘날려
서울을 해방하고
다시한번 휘날려
대전의 《불의의 신》을 짓궂게
빛나는 위훈을 새겨온 이 군기
군위병사 나를 결전으로 부른다

불라는 강하와 언덕들을 넘어
승리를 안아온 군기여
그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아들딸들이
너의 기록이어서
무적의 용사로 자라났더냐

강철의 명장 수령님 손길아래
조국의 자랑으로 나뭇길 기발이여
우리 장군님 새기신
선군령도의 첫 자욱과 더불어
선군혁명의 정전에
더 높이 휘날린 기발이여

바라보면

군기와 용맹으로 심장은 높인다
무쇠철강의 조종간을 틀어잡고
우리 원수님 울리시던 멸적의
불퇴성이
군기의 퍼덕임속에 메아리쳐오
나니

웨친다, 군기는
말이든 무한케도로
적진을 짓궂게 내댤던
50년대의 전군길을 멈추지 말라고
선군혁명의 전투에서
원수적멸의 불꽃기를 더 세차게 뿜으
라고

명명만 내리시라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승리의 정풍이 빛나는 군기에
내 눈부신 금발을 수놓으며
반미결전의 전장을 앞장에서 누벼
가리니

아, 위훈의 군기는 나를 부른다
악의 소굴을 추방쳐버리라고
미제의 영원한 종말을 선언하며
승리의 열병행장에
백승의 기록 자랑스럽게 휘날리
라고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민족음악예술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돐경축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민족음악예술종합공연 《선군절 8.25》가 2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에는 각 도민족음악예술공연단자들이 출연하였다.

주요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 로동자들,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무대에 남성5중창과 합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여》, 장교제창 《선군소리 용혜야》 등의 종목들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워 주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조선이 영원토록 부강번영할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선군의 길에 아로새겨진 아버지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를 되새겨주는 녀성독창 《장군님 꽃피우신 선군의 덕이리요》, 녀성5중창 《행복의 날리리》, 가야금병창 《선군날리리》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가장 포악한 미일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며 녀성2중창과 병창 《혁명이여 사파바다》 등의 종목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어오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관람자들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과 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녀성5중창 《우를 잊지 실물세》, 가야금 병창 《모란봉》, 남성5중창 《우리 민족 제일이여》, 남성독창 《오늘의 창성》, 녀성독창 《노래갈변》, 《신고산 타령》, 《꽃피러 가세》, 녀성중창 《군인아리랑》 등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민족적정서가 넘쳐나는 종목들이 나왔다.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로 막을 내린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기념하며 영웅고수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생산과 건설에서의 일대 앙양으로 반세기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 적극 이바지 해 나갈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신념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북남고위급 긴급 접촉 진행

【관문점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관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파 총용료 통일부장관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북남사이의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파 총용료 통일부장관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북남사이의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

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재가 산성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민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

참가하였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월남국가주석, 파키스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정일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0일 프놈펜 왕 왕남사회의 주외공화국 주석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쯔영 면 쌍 주석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지도간부들이 울리는 따뜻한 인사와 가장 훌륭한 축원을 전하여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말 전하여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월남과 조선사이

호지명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오찬 전례를 가진 귀중한 관계이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중시하고 여러 분야에서 적극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월남지도부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적립장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대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1일 밤에 프놈펜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쯔영 면 쌍 주석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여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지도자들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은동지께서 남측의 판심속에 이 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 파키스탄은 의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주의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제2차 아리스포츠컵 15살미만 국제축구경기대회 진행

제2차 아리스포츠컵 15살미만 국제축구경기대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5일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의 4.25팀과 평양국제축구학교, 브라질의 아틀레티코 소로카바팀, 우즈베키스탄의 FC 분요드프르팀, 중국의 콘명시팀, 호르바스까지의 HNK 세게스타팀, 남조선의 경기도 팀과 남강원도팀이 참가하였다.

각 팀들은 두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진행하였다.

매 조에서 성적이 높은 4.25팀, 아틀레티코 소로카바

팀과 평양국제축구학교, FC 분요드프르팀이 준결승단계에서 대결경기를 하고 나머지 팀들은 직선경기로 승부를 결정하였다.

준결승경기들에서 이진 4.25팀과 평양국제축구학교팀이 결승의 마당에서 승부를 겨루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4.25팀이 1등을, 평양국제축구학교팀과 아틀레티코 소로카바팀이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에 접과 메달이, 우수한 선수, 감독들에게 개별상이 수여되었다.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적전시회 개막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전국 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적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각지 청년대학생들이 학습과 과학탐구로 무장 조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될 불타는 열정과 세계를 앞서나갈 배짱을 지니고 최첨단과학기술을 힘있게 벌리는 파장에 이룩한 1700여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성적파로들이 출품되었다.

개막식이 24일 3대 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공부, 청년동맹 일군들, 학생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강국, 인재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과학탐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품간, 조국번영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유능한 인재로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제5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 진행

제5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라선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 도이쉴란드, 도미니카, 이탈리아, 중국, 카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이 이번 전시회에 600여종의 전기전자제품과 식품, 일용품, 의약품, 농수산물가공품, 가정용품들과 물건가게 등을 출품하였다.

라선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젊은이 교류하였으며 라선경제와 외국인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결성 70돐 대표단 도착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결성 70돐 대표단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인민보안부 일군들과 주조 월남사회의 주외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기포 평양을 떠나 갔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행복, 우리 제도를 해치려는 원수들과 끝까지 싸워 결판을 보자

준전시체제로 전환된 최전연지역 김화군에서

격전전야의 전투적인 당정치사업

군 당 위원 회 에 서

전전시대에 준전시상대가 선포된데 맞게 김화군당위원회에서는 당정치사업을 화선적으로 확고히 진행시켰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당위원회에서는 사업방향부터 전투적으로 세웠다.

혁명적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하여왔고나고있다. 준전시체제로 전환된데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우리 혁명의 백승의 보검인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나갈데 대한 문제들에 당정치사업의 첫째가는 힘을 쏟고있다. 모든 단위를 인민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인민군대식으로 승리의 신심높이 창조와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위업을 밀어붙인 군대와 인민은 그 무엇보다도 정복할수 없디는것. 바로 이것이 역사의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인민보안,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을 강화하여 주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고있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정신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의 가슴속에 거들 깊이 심어 주며 그들이 조국보위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화선적 정치사업을 강화해나가고있다.

혁명적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하여왔고나고있다. 준전시체제로 전환된데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우리 혁명의 백승의 보검인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나가는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고강도 정치사업을 벌이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선전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선전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선전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초서리를 비롯한 군인의 협동농장에 달려나간 군기동애송 선동대원들은 전시가요를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소품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들어가 선동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을 들고 총공격전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고무하고있다.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과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속에 당원들은 땀 흘려진투실적인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속에 전선전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강도높이 벌이고있다.

군당위원회 일군들과 군지의 강연장들이 군인의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단위에 나가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리에 철통같이 뚫고 들어와서 대중속에 전선전투에 대한 신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강도높이 벌이고있다.

를 먼저 못한다는것을 깊이 해설해주며 모두가 필승의 신심높이 원부격멸의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군계급교양반 강사들이 명철의 기사가 내려지는 현실에 들어간 반제반미계급교양을 실감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복수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군계급교양반 일군들과 강사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반부에서 대중적학살행을 거침없이 감행한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만행을 폭로토끼하는

이통해설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에서는 당보를 비롯한 당출판물들을 즉시 전투현장에서 배포하고있으며 당조급일군들이 독보를 비롯 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화선적으로 진행되는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무된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고도의 격동상태를 갖추고 일당명령이 내려지면 다지고다져서 선군의 위력을 총괄박시켜 피괴적적당당을 무자비하게 철저히 소탕해 버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한 세대도 놓칠세라

준전시상대가 선포된 후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더욱 분방해졌다.

다치면 버릴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흐르는 전전시대이지만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뛰고 또 뛰고 있다. 젊은 사람이 없다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

한 세대도 놓칠세라!
우리 당의 인민정권이 그대로 비껴있는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수업을 보며 주민들은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는 당의 구호의 참뜻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의 우리 제도를 굳건히 사수할 결연한 조국보위성전으로 가슴 불레우고있다.

더 높이 울려가신 배움의 글소리

준전시상대가 선포된 김화군의 모든 학교에서는 단 하루도 수업이 중단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레일엔 꿈과 희망의 노래를 한껏 펼치며 활기에 넘쳐 동고동락으로 공부하고있다.

전전시대를 누르고있는 무거운 공기를 헤쳐가며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글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지고있다.

화선군 의 된 심정으로

준전시상대가 선포된 김화군에서 보인 일군들은 1950년대의 화선군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내과와 보건의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와 준전시상대의 긴장한 속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보건사업이 철

지히 집행되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군인병원 보건일군들은 수도 준전시상대에 들어간 날부터 군에서 요구하는 의약물들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우고 보건일군들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현지 보도

플베기도 전투!

초서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미제와 직접 맞서 싸우면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주로는 군사분계선을 지적, 여기는 근초고산 초서협동농장 제4작업반의 플베기전투장이다.

당장이라도 로연이 서리고 포성이 노호할 참에 최전연지역의 플베기전투장에는 이른아침부터 멀찍이 기상 차넘친다. 작업반의 로농직공대원들이 매일 당장 전역이 일어나도 플베기를 더 많이 생산할 만만한 기세로 플베기를 다그치고있다. 산판의 곳곳에 나뭇을 힘있게 굴발들, 필력은 붉은기름, 방중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전시가요가 전투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사회주의 내 조국명에 감히 선불질을 해낸 남조선피괴군부장들에게 대한 서리발치는 복수심을 안고 낫을 으스스치게 들

어귀고 플베기를 다그치는 로농직공대원들의 얼굴마다에 멀찍이 기상이 역력하다.

제대군인작업반장 방룡학동무가 맨 선두에서 원수들의 목을 사정없이 베듯 힘있게 낫을 휘두른다. 순간에 한아름의 플베기를 제격 비꼬려대고는 낫을 다시 휘둘러 그의 뒤를 류상기동무를 비롯한 로농직공대원들이 바짝 따른다.

《모두가 남조선피괴군부장들의 목줄을 베는 심정으로 풀을 베고있습니다. 오늘계획도 200%는 문제없습니다. 우리 동무들모두가 풀만 한다면 원수 한놈이라는 멀찍이 푸지를 안고 플베기를 다그치고있습니다.》

농장일군인 송신욱동무의 말을 중명이라도 하듯 퇴적장마다에서 풀베는 점점 높아간다. 뚝뚝 씹히는 풀단을 걸이대로 뚝뚝 찍어 퍼가려는 농장일군 기동들의 얼굴도 복수의 열기가 달아있다. 그를 가리키며 농장일군은 비록 나이는 많지만 작업반적으로 제일먼저 인민군

대 부대를 단련한 어제날의 제대군인이라고 귀뚱해준다.

어찌 엄기벌 농장원만이었는가.

일당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원수격멸의 결전장으로 달려갈 만단의 전투원태세를 갖추고 일손을 다그치는 적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 멀찍이 푸지가 번득인다. 여기서 결전장이다!

남조선군부호적광들에게 죽음을!

이것이 농장원들의 결심이고 플베기전투장의 숨결이다.

한손에는 낫을, 다른 한손에는 총을.

질써 풀을 베어나가는 로농직공대원들의 가슴가슴은 원부격멸의 의지로 무성해 불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플베기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퇴적장마다에 풀베기가 높아 썰기진다. 한때 북쪽의 기가 화선처럼 번들고있다.

여기 최전연지역의 플베기전투장은 5인민반에 살고있는 조옥분, 구봉리 9인민반에 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근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인민군대부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군대와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사방하며 즐겨부르는 노래 《직동령의 승리방아》! 시시각각 정세가 긴장해질수록 김화군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원호를 마련하여 인민군대원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직동령 마루에 보물밭 솟아나니 원호미 쟁기에도 신바람 절로 나네
웃음이 활머리는 일일이요 샘물집 마며느린 참살이요

...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현호에 앞장섰던 금강군 인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를 즐겨 부르는 김화군 인민들은 누구나 원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전철리 5인민반에 살고있는 조옥분, 구봉리 9인민반에 살

직동령의 승리방아

고있는 리금혁동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 오늘 높아가는 원호열의를 안고 가정에서 마련한 원호물자를 인민군대원들에게 인가해주었다. 읍 112인민반에 살고있는 김경희동무를 비롯한 당원들도 성의껏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인민군대원들에게 보내주고있다.

준엄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는 조국을 지켜 속슴도 서슴없이 바치셨던 인민군사들을 찾아 사랑할 포란, 탄약을 저다주던 강원당 인민들.

김화군 인민들은 전화의 나날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군대원들을 적극 원호하고 있다.

가정에서 준비한 원호물자를 안고 인민군대를 찾아간 어촌리 18인민반의 정순녀동무, 고추장을 비롯한 부식물을 마련하여 인민군대원들에게 인가준 통원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승철동무와 수십명 농장원들의 소영이 그것을 그대로 맡아주고있다.

한 세대도 놓칠세라

준전시상대가 선포된 김화군에서 보인 일군들은 1950년대의 화선군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내과와 보건의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와 준전시상대의 긴장한 속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보건사업이 철

지히 집행되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군인병원 보건일군들은 수도 준전시상대에 들어간 날부터 군에서 요구하는 의약물들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우고 보건일군들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더 높이 울려가신 배움의 글소리

준전시상대가 선포된 김화군의 모든 학교에서는 단 하루도 수업이 중단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레일엔 꿈과 희망의 노래를 한껏 펼치며 활기에 넘쳐 동고동락으로 공부하고있다.

전전시대를 누르고있는 무거운 공기를 헤쳐가며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글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지고있다.

화선군 의 된 심정으로

준전시상대가 선포된 김화군에서 보인 일군들은 1950년대의 화선군들처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내과와 보건의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와 준전시상대의 긴장한 속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보건사업이 철

지히 집행되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군인병원 보건일군들은 수도 준전시상대에 들어간 날부터 군에서 요구하는 의약물들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우고 보건일군들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선군덕을 노래하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선군정치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괴멸살해행으로 전대미문의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없을 막이나졌던 시기 공업부문에서 떠오른 생산정성화의 첫 봉화, 성강의 봉화에 대해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곤 한다.

남들같은 열매도 더 주지 않았을 시련의 그 시기에 북방의 철의 기지 성강에서 떠오른 거대한 봉화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불, 선군조선의 존엄을 단방에 떨치게 하여준 역사적의미가 큰 봉화였다.

1998년 3월, 성강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회를 많이 생산하는것은 적들의 괴멸살해행을 짓부시고 나라를 지키는가 지키는가 하는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시며 조국수호, 사회주의의 전에서 조국이 맡고있는 사명감을 깨우쳐 주시었다.

준엄한 봄날에 성강의 봉화는 이렇게

조국수호의 운명을 안고 지쳐왔다.

위대한 장군님 지어주신 성강의 봉화는 온 나라에 로연의 불길처럼 타번져 원안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통치로 운명을 함께 하며 나라의 곳곳에 대동력기와 중소형발전소를 일파에 했고 일터마다에서 생산정성화의 풍을 높이 울려왔다.

어려운 매일수백 명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명도자를 충성되게 받들고 따르는 바로 이것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고난을 박차고 일떠선 우리 조국의 모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며 원안대적도 받아메로 끌어모는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지고 또 다져왔기에 우리 조국은 자주의 강국, 백두산 대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제 죽을줄 모르고 달려드는 부나비처럼 분별없이 날뛰는 피괴군부호적광들은 우리의 선군의 위력이 어떤것인가를 죽어서도 뼈에 새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역

선군정치를 맞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경사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농장을 찾으시었던것이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행복이 원호함에 넘쳐났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안내해드린 크나큰 영광을 지닌 농장의 일군은 그날의 감격을 금치 못하며 이면의 야기를 들려주었다. 두해전까지만 하여도 농장에서는 많은 사파나들이들 여공피해를 받았다. 그 피해로 사파나들이가 죽어갔고 영양상태가 나빠져 수확고가 떨어졌다.

이 사실을 두고 제일 가슴아파하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지난해 6월 초 농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파일나무는 자연지리적, 기상후적조건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시면서 물소 그 대목을 세워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더 많은 파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도록 힘과 용기를

인가해주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지지도 과업을 조항조항 따져가며 사파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그리하여 메넨에 없는 파일대풍을 이룩하였다.

수도시민들에게 수백의 파일을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인는 순간 일군들은 생각이 깊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 그것은 수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파를 먹이시려 그처럼 헌신의 로고를 마지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현실로 꽃피게 되었다는 만족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의 창조물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을 지키고 빛내게 되었다는 기쁨이었다.

정령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현지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속해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정성파원의 파일향기는 영원히 넘쳐흐를것이다.

본사기자 정 성 일

나부기배 찾아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새 세대의 가슴속에 뜨겁게 울리며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깊이 전하여주고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
지금도 우리 인민은 미제와 괴뢰들의 침략적인 《텔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과 제국주의권한세력의 《태사람》 소동이 평판적으로 벌어지는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충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찾으셨던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날 아영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영생들이 들게 될 침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후대들을 위해 정성을 다 기울이고 계셨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아영소년실에 거머쥐는 돈이 들었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당에서 마음먹고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소년단아영소인데 아가울것 이 없다고, 현대적인 큰 소년단아영소를 어린이들에게 선물할수 있게 되어 대단히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

기쁘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오직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사랑의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이 아영의 길에 오를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으니 우리 장군님 낮이낮이나 이어가시던 선군의 길 위에 후대들의 행복이 꽃피고있음을 우리 인민은 노래에 담아 자랑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있는것이리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어린 손길에 의하여 더 훌륭히 번민된 충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는 이 땅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력사는 끊임없이 흐를것이라 는것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적들이 전쟁도발행동에 미쳐달려다 우리 인민은 더욱 맑고 창창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넘쳐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다져주신 위대한 힘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만능의 보검이 있기에, 본사기자 공 로 혁

어 인민군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전화의 나날 조국의 촛노를 피로써 사수하던 인민군대를 몰심방명으로 원호하던 그때처럼 금강군 인민들처럼 김화군 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군대원들에게 인가해주는 지성을 다하고있다.

본사중군보도반 (현지에서 전송)

어 인민군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전화의 나날 조국의 촛노를 피로써 사수하던 인민군대를 몰심방명으로 원호하던 그때처럼 금강군 인민들처럼 김화군 인민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민군대원들에게 인가해주는 지성을 다하고있다.

본사중군보도반 (현지에서 전송)



성 강 의 쇠 물 폭 포



대 동 강 과 수 종 합 농 장 의 파 일 대 풍



세 상 에 볼 도 없 는 아이 들 의 궁 전 으 로 일 떠 선 충 도 원 국 제 소년 단 아 영 소

